

KIA 최형우·양현종의 시즌 각오



KIA 타이거즈의 외야수 최형우가 18일 챔피언스필드 실내연습장에서 새 유니폼을 입고 프로필 사진을 찍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3·30·100’은 기본…우승해야죠”

할 홈런 타점

‘100억 사나이’ 최형우

‘FA 대박’ 부담보단 자부심

전주 집 가까워 맘도 편해

신인 자세로 경기 임하고

‘광주 무홈런’ 징크스 깰 것

“3할, 30홈런, 100타점은 최소 목표” 새 유니폼을 입은 ‘신입 호랑이’ 최형우가 KIA 타이거즈 선수로 맞는 첫 시즌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18일 최형우는 프로필 사진 촬영을 위해 새 유니폼을 입고 ‘새 동지’ 광주에서의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새로운 팀에서의 출발, 유니폼까지 새로 바뀌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다.

“신인입니다”라며 입을 연 최형우는 “설렌다. 새로운 기자들, 동생들 보는 것도 그렇고 광주에서 움직이는 것도 새롭고 설레기도 하다”고 밝혔다.

각종 시상식의 주인공으로 바쁜 연말을 보낸 최형우는 연초에도 강행군이다.

‘100억 사나이’로 KIA의 2017시즌을 이끌어야 하고 그에 앞서 한국을 대표하는 중심타자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무대도 누벼야 한다. 그래서 예년보다 빠른 속도로 몸을 만들고 있다.

최형우는 “시상식이 끝나자마자 꾀에 갔다가 들어온 지 며칠 안 됐다. 예전보다 몸을 빨리 만들었는데 대표팀을 처음 하기 때문에 정신없다. 설렘 반 기대 반으로 개인훈련을 했는데 준비하는 날짜가 안 맞아서 꾀에 들어가서 다시 훈련을 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최형우는 프로필 촬영 일정 등을 소화한 뒤 이날 밤 비행기로 광으로 들어갔다. 새로운 팀에서의 새출발, 전주고 출신의 최형우에게 ‘고향’이라는 의미가 특별하다.

최형우는 “시즌은 아직 안 치렀지만 집이 가까우니까 좋기도 하고 마음이 편하기도 하다”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지난 시즌을 돌아보면 광주는 최형우에게 반가운 곳은 아니었다. 지난 시즌 31개의 홈런을 날렸던 최형우지만 KIA를 상대로는 단 하나의 홈런을 기록하지 못했다.

최형우는 “KIA를 상대로 타율이 높지

만 빔받은 것들이 많았다. 홈런은 하나도 없었다. 화가 많이 났었다”며 “광주에서 홈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연습을 하다 보면 (홈런을 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고 광주 징크스 탈출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광주·KIA에서의 성적, 새로운 타순에 대한 궁금증에 올 시즌이 기다려진다.

최형우는 “삼성에 있을 때는 내 앞뒤로 왼손 타자가 많았는데 여기에서는 오른손 타자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제 색다를 것 같다. 삼성에서는 꼭 좌타자가 있어서 왼손 투수가 나오면 계속 나왔었다. 그때와 다르게 상대가 작전을 바꾸고 할 것인데 그제 재미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형우는 이번 겨울 우리나라 프로야구 사상 첫 FA 100억 고지를 돌파하면서 가장 뜨거운 이름이 됐다. ‘100억’은 그에게 부담이기보다는 자신감이자 자부심이다.

최형우는 “성격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신경 안 쓴다. 기사를 봐도 댓글은 잘 안 본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신경 쓰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100억이라는 금액이) 부담은 아니다. 거기에 맞는 활약을 못 할 수도 있고 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 할 것만 하다 보면 욕을 먹든 칭찬을 먹든 (결과가 나올 것이고) 나중 일이니깐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열심히 하겠다”는 최형우의 목표는 확실하다. 타자들에게는 하나도 달성하기도 쉽지 않은 3할, 30홈런, 100타점을 동시에 이야기를 했다. 이것도 최소 목표라는 게 최형우의 이야기다.

최형우는 “(3할, 30홈런, 100타점) 최소 목표다. 중심타자라면 당연히 해야하는 기록이라고 생각한다. 큰 새로운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다. 팀도 윙기고 원하고 좋아하는 팀에 와서 새로운 사람들과 다시 우승을 하는 게 가장 큰 꿈인데, 당장 (우승을) 생각하기보다는 천천히 천천히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 같다. (내가 와서) 우승을 하면 당연히 좋지만 우리 KIA 타이거즈가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동점을 해서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먼저 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형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첫 유니폼을 입은 마인드로 열심히 하겠다”며 자신을 기대하는 팬들에게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팀 좌완 최다승 달성하고 가을잔치 더 길게 하겠다”

대권 도전 ‘키 맨’ 양현종

최형우 영입·나지완 잔류

선수들에 플러스요인 작용

가족처럼 대하는 팬들 감사

선수로서 좋은 모습 보일 것

“나쁜 일은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다. 어디 못 갈 것 같다”며 웃음을 터트린 양현종. KIA는 양현종의 운명이다.

KIA 타이거즈 에이스 양현종은 대권 도전의 ‘키’였다. 나지완의 잔류에 이어 최형우의 영입으로 막강 타선을 구축했지만 선발진은 미완성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외행을 추진했던 FA 양현종의 거취는 구단은 물론 팬들의 큰 관심사였다.

결과는 해피엔딩이었다. 하지만 1년 계약이라는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다. FA 시장에서 출혈이 컸던 KIA와 해외 진출을 염두에 뒀던 양현종은 서로 양보를 하면서 계약기간으로 접점을 찾고 2017시즌을 위해 다시 손을 잡게 됐다.

양현종은 “서로 한발씩 물러서면서 계약을 했다. 이에 대해 보상을 해주신다는 구단도 믿고, 구단도 나를 믿고 서로 믿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한 것 같다. 아쉬움은 남겠지만 다시 후회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KIA팬들은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양현종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보이고 있다.

양현종은 “어디 못 갈 것 같다(웃음). 팬들이 인정해주시고 나도 KIA 팬들을 너무 아낀다. 태어나서 자라고 야구를 했던 곳이 광주다. 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선수가 아니라 가족으로 생각해주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 프로야구 선수로서 좋은 모습만 보여드려야 한다는 게 스스로 목표인 것 같다. (야구) 외적으로도 선

수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팬들이 믿어주시는 만큼 나도 팬들을 믿고 야구나 사회생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까지 응원해주시면 이를 갚을 수 있는 플레이를 보여드리겠다”고 언급했다.

휴가분한 마음으로 익숙한 곳에서 또 다른 시즌을 보내게 된 양현종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다. WBC 대표팀의 핵심 멤버이자 KIA를 대표하는 투수로 책임이 막중하다. 팀은 물론 대표팀에서도 중요 참수 선수로서의 역할도 해야 한다.

양현종은 “원래 체력운동을 하는 시절인데 지금 (WBC에 대비해) 공을 던지고 있다. 불안한 것도 있지만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고 숙제인 것 같다. 준비 작업은 순조롭다”며 “벌써 11년차가 되어 팀에서도 중요참이니까. 선발을 이야기도 잘 듣고 후배들도 이끌어야 하는 위치고,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다. 대표팀에도 어린 선수들이 많다. 나도 국제 대회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어린 선수들 설레여 하고 태극 마크를 달았다는 자부심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좋았다. 대표팀에서도 중요참 위치가 됐기 때문에 내가 더 정신차리고 해야 후배들이 잘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느 해보다 바쁘게 전개될 시즌, 기대감은 높다. 개인적으로도 더 발전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양현종은 “장담하는 데 성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팀이 더 좋아질 것 같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타자가 왔고, (나지완이 형이나 나나 잔류만으로도 선수들에게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다. 확실히 작년보다는 더 오랫동안 가을잔치를 하지 않을까. 우승을 하겠다는 목표보다는 작년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겠다”며 “항상 (개인적인) 목표는 작년보다 잘하는 것이다. 타이거즈 왼손 투수에 대한 기록에 내 이름을 남기고 싶다. 현재 87승인데 김정수 코치님의 팀 역대 좌완 최다승(92) 기록이 남아있다. 최다승 기록을 바꾸고 이름을 남기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05위 정현 “15위 디미트로프 꺾겠다”

오늘 호주오픈 2회전 격돌



성준권 후원)의 2회전 경기 일정이 확정됐다.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조직위원회가 18일 발표한 19일 경기 일정에 따르면 정현과 그리고르 디미트로프(15위·불가리아)의 남자단식 2회전은 하이센스 아레나의 두 번째 경기로 예정됐다.

호주오픈이 열리는 호주 멜버른 파크의 내셔널 테니스센터에 있는 약 20면의 테니스 코트 가운데 하이센스 아레나는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코트다.

정현과 디미트로프의 경기가 하이센스 아레나에 배정된 것은 역시 세계 톱 랭커 가운데 한 명인 디미트로프의 ‘이름값’ 덕이다. 하지만 상대 역시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에서 ‘차세대 유망주’로 인정받는 정현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현의 2회전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시작하는 에카테리나 마카로바(34위·러시아)와 사라 에라니(53위·이탈리아)의 여자단식 2회전이 끝난 뒤에 시작한다.

여자부 경기가 2시간이 채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현은 워밍업 시간을 포함해도 오전 11시에서 정오 사이에 2회전 경기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디미트로프는 1991년생으로 정현보다 5살 많고, 키는 191cm로 정현보다 6cm 정도 크다. ‘미녀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러시아)와 교제한 선수로 유명하다.

기량도 출중해 2014년 세계 8위까지 올랐고, 2014년 뮌헨에서는 4강에도 오른 경향이 있다. 정현과 디미트로프는 이번이 첫 맞대결이다.

정현이 2회전을 통과해 상승세라고 하지만 디미트로프의 기세가 더 무섭다.

디미트로프는 올해 첫 대회로 열린 ATP 투어 브리즈번 인터내셔널에서 밀로시 라오니치(3위·캐나다), 니시코리 게이(5위·일본), 도미니크 팀(8위·오스트리아) 등 10위권 이내 선수들을 줄줄이 연파하고 우승까지 차지했다. 호주오픈 1회전까

지 올해 치른 6경기에서 6전 전승을 거뒀다.

박용국 JTBC 해설위원 겸 NH농협은행 감독은 “디미트로프가 ‘리틀 페더러’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샷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기 때문에 정현으로서는 많이 뛰어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체력과 기동력이 갖춰져야 좋은 경기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멜버른 현지에서 경기를 관전 중인 이진수 JSM 테니스아카데미 원장은 “정현이 서브가 많이 향상됐고 스트로크 대결에서는 원래 톱 랭커들과도 밀리지 않았다. 고비에서 주눅이 들지 말고 자신의 플레이를 과감하게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